

재일사학자 강재언 교수 “한국내 소수그룹 보호를”

(대한매일 2001.03.30)

재일사학자 강재언 교수 “한국내 소수그룹 보호를”

“정부가 95년 고문방지 협약 가입을 마지막으로 국제 인권에 관한 6 대 협약에 모두 가입한 만큼 이제는 국내의 소수그룹(Minority)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서울중국학중심(대표 양필승 건국대학교수)이

28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계화와 인권: 영주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재일사학자 강재언(姜在彦) 하나조노(花園) 대 명예교수는 재일동포들의 인권 상황개선을 요구하는 것 만큼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인권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교수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 소수그룹으로 화교 조선족 외국인노동자등을 꼽을 수 있다”며 “2 세 3 세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의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76 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한 강교수는 “일본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이런저런 차별 분위기로 58 세때까지 시간강사를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일본도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이후 재일동포에 대한 쳐우를 크게 개선시켰다”면서 “자기 자세를 바로잡지 않고 남더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일동포들의 권리신장 운동을 하다가 한국의 화교는 어떤 처지인지

궁금해 자료를 입수하려 했으나 자료도빈약하고 공개를 꺼리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창피한 일이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면 더 창피한 일이 된다. 우리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재일동포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전한 강교수는 지난 25 일 오사카돔에서 민단과 조총련은 물론 오사카 시민 3 만 3,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 마투리’ 행사를 소개하면서 조총련 오사카본부가 조총련 중앙의 ‘신중 대처’ 요청을 무시하고 ‘전후 최대의 재일동포 행사’를 강행했을 만큼 양측을 가르고 있는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의 인기상승에 대해 강교수는 “오스트리아의 극우지도자 하이더도 선거에서 이겼지만 결국 총리가 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지성있는 일본인들은 여러가지를 생각할 것이며 그런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고립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석진기자 sckang@
기사일자 : 29-MAR-0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10329019009>